

올漁港工事に정대로順調

장마, 시멘트不足등克服

計劃工程상회 '89移越工事도

17個港중 4個港만남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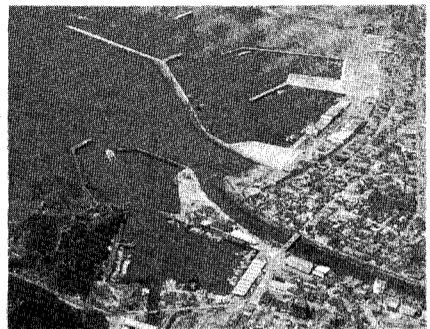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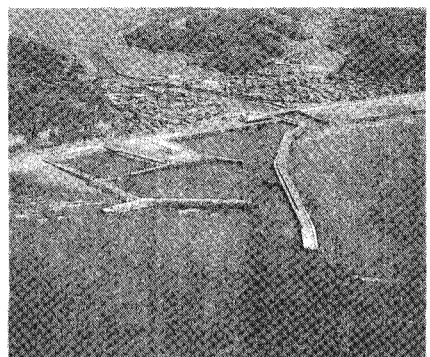
올해 어항건설의 계획공정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수산청에 지난 6월 17일의 계속된 장마와 레미콘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어항시공이 계획공정을 상회하고 있다

세포, 아양진항의 준공확정됨으로써 영등포항 4개항에 4건의 남았다. 수산청에 따르면 '89이 월공사중 구계, 다대포, 신수, 돌산, 외포항, 방어진, 오만진(중실), 안흥, 위미, 추산, 소흥산도, 아양진, 지세포 등 13개항의 15건의 준공됐고, 어만진, 영등포, 마량어항도 4개항의 준공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위·아래: 어업기반시설을 현대적으로 고루 갖춘 선진국 어항에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이상어항'을 더욱 견실하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공공사의 제한정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제한기준을 크게 완화시켰다. 조달청은 국내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시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공공공사 입찰에서 시공실적이나 도급한도 등을 기준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해오던 실정제한기준을 전면개정, 8월 1일 공사업계약요청 접수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사진 위·아래: 어업기반시설을 현대적으로 고루 갖춘 선진국 어항에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이상어항'을 더욱 견실하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항협회는 선진국의 어항건설의 현황을 직접 현지에서 두루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정세의 어항개발과 어항개발 및 기술의 진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제2회 해외선진어항시찰단을 모집하고 있다.

11·14(8박9일) 시찰어항: △일본V하가다어항(博多), 가자도어항(志賀島), 신나가사키어항(新長崎), 노보어항(野母), 아구노어항(阿久根), 에노즈(江ノ口), 이도(伊豆)어항(伊豆), 기노만(吉野灣)과 △대만V대북기항(大北), 팔미어항(八峰), 콩V아미어항(阿美), 참가대상: 희망자(회원 및 어항인) 우선

2(수협) 논현동지점... 0391011255... 3. 신청마감: 90.9.30.

대상 공사중 템·함만시 실공사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기준을 최 종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기준개정을 통해 조달청은 △정수장, 취수공법 등의 대해서는 국제

장 △교량 △사무용대형 건축물 △포장 △터널지 하차도) △지하철 △신호 등 7개 공종의 제한기준을 완화했고, 보편화된 공법 등의 대해서는 국제

한 경쟁으로 시행하고, 연륙교 연도교 등 특수공법 공사에만 실정제한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2면에서 계속) ▲강국회씨(합자회사대 한 토건사(상부)) ▲이종만씨(조흥공업주식회사(부사장)) ▲최준용씨(조흥공업주식회사(상부이사)) ▲김재국씨(주식회사문원사(대표이사)) ▲박현규씨(금광기업주식회사(상부이사)) ▲임무성씨(삼일건설주식회사(회장))

▲유세형씨(한국항만협회 기술부장) ▲이태선씨(한국수산신보 편집부장) ▲이선재씨(어민신문 편집부장) ▲이동배씨(전 수산청장) ▲김일재씨(주식회사법신 기획(회장)) ▲전정진씨(수협중앙회홍보실(차장)) ▲황재수씨(한국수산신보 대표이사)

나. 본회구좌번호 1(주택은행) 인주도 지점: 482601188 1205150. 2(수협) 논현동지점: 0391011255 3. 신청마감: 90.9.30.

會館건립促進協 漁港協會 9次理事會

한국어항협회는 8월 3일 삼오(三浦)시 만다라(大浦)빌딩에서 제9차이사회를 개최했다. 제2기임원(90년)이탈 이사회에서는 90년 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이어 어항협회관 건립기금모금추진계획을 논의하고,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수협) 특별이항인의 추천안이 자항구적인 구상안이 될 어항회

第3回漁港寫眞公募

많은 應募바랍니다

사자 및 수산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어항 사진공모에는 어항을 중심으로한 수산관련 모 든 작품을 출품하시면 됩니다. 출품을 원하시는 분은 사진 뒷면에 작품명, 직장, 주소, 실명(기재)

출품대상: 어항을 중심으로한 수산관련 모든 작품 종류 및 규격: 흑백 및 컬러 4X5이상 출품접수: 제한없음 (뒷면에 작품명, 직장, 주소, 실명(기재))

출품기한: 90년 4월 1일~10월 31일까지 작품심사 및 입상작품 발표 심사: 심사위원은 사계권위자로 구성, 엄격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가작 5점 선정

발표: 12월 어항소식 및 어항지 겨울호에 발표

상패 및 상금: 금상: 상패, 20만원 은상: 상패, 15만원 동상: 상패, 10만원 가작: 상패

시상: 90년 12월 중 기타: 출품작품은 본회에 귀속, 어항지 어항소식에 게재.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번지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 1351010

△취급품목△

- 직 접 염 료
- 산 성 염 료
- 산성히스트염료
- 산성크롬염료
- 반 울 성 염 료
- 형 광 염 료

창립 16주년

染料製造 및 輸入業體
金亞化學工業社
金亞洋行
代表 金石達

本社: Tel. (02) 672-2374
서울工場: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100번지, Tel. (02) 633-2309
부천工場: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203번지
대구出張所: 대구시 서구 평리5동 1493-8번지, Tel. (053) 555-9333 554-9333
부산出張所: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 2동 535번지, Tel. (051) 806-4443~4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15]

水域施設

다. 항로폭(航路幅)

항로의 폭(幅)은 대상어선의 크기 통행량 및 지형, 파랑 등의 자연조건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항로의 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항로폭은 대개 다음 표1과 같이 되어 있다.

터욱이 표1은 표2와 같은 왕복항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외항과 내항이란 표3에서 표시한 것과 같으며, 어선은 외항에서 항내로 들어와서 내항까지 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다.

이경우에 외항은 항로를 정온토록 하여 어선의 출입항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박지면적을 증가시켜 항내의 정온도를 향상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5B~6B의 항로폭은 대개 배의 길이와 비슷하다.

외항에서 외항으로 들어오는 항로의 폭은 황천시의 항로폭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 경우는 파랑에 대한 여유를 더하여, 6B~8B로 하였다.

라. 항로수심

항로에 있어서는 만재(滿載)상태의 최대이용 어선이 지장없이 항행할 수 있는 수심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항로의 수심은, 박지내의 최대수심을 확보함과 아울러 파도에 의한 선체의 동요, 흡수차(吃水差), 항행에 의한 선체의 침하등에 대한 여유를 더한 깊이로 한다.

어항구조물 표준설계법에 의한 항로의 수심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항로수심 = 항로를 항행하는 최대어선의 흘수 + 여유. 여기서 "여유기준"으로서는 해저의 지반이 경질(硬質)지반의 경우는 1.0m 이상, 해저의 지반이 연질(軟質)지반의 경우는 1.0m로 한다.

해저의 경질지반의 경우 여유수심을 크게하는 것은 선체가 해저에 접촉하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지수심에 있어서는 여유로서 0.5m를 취하고 있으나 대개 항로수심 + 0.5m로 생각하고 있

으며 실제 이와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에서 기술한 여유 1.0m 및 1.0m 이상의 표현은 실제에 있어서는

① 파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선체의 동요에 대한 여유(입출항이 가능한 시기의 한계파고의 2/3정도

② 적하(積荷) 또는 항행에 의해 일어나는 선수미간(船首尾間)의 흡수차에 대한 여유

③ 얇은 수심의 수역이나 항로 단면적의 적은수역에 어선이 항행할 경우 선체부근의 수위가 저하되고, 선체가 침하하는 현상에 대한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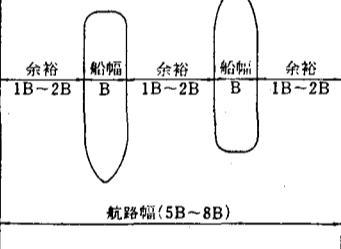
④ 조선(操船)이 비교적 용이하지 않은 항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여유등 이러한 모든 면을 포함하여 실제적으로 이용에 지장이 없는 수치로서 1.0m로 한것이나, 적은 예이기는 하나 1.0m 이상의 여유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의 ①~④에 의해서 산정하고, 필요한 수심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 1

航路의 位置	航路幅員
外海에서 外港으로 들어오는 航路	6B~8B
外港에서 内港으로 들어오는 航路	5B~6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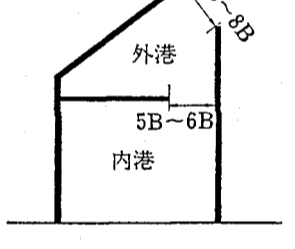
(B는 對象漁船의 船幅)

표 2



航路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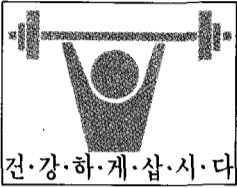
표 3



外港·内港

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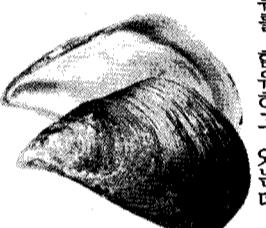
EPA등 많고 영양우수 수출패류로도 각광



다.시.삼.개.하.강.진

담치류는 현재 18종의 알과 종류가 있으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주담치인데 큰 것은 길이 9.5cm, 무게 4.5g, 작은 것은 길이 3.3cm, 무게 0.3g이다. 진주담치는 유럽이 원산지라

전남산 대형 담치는 일반적 으로 국내에서 값비싸게 소비 되고 또한 전통적인 가공품인 담치(자건포)·(자건포)의 가공원 료로 인기가 있다. 소형 진주담치도 국내에서 자건포(자건포)로 가공이 되지만 주로 냉동제품과 통조림으로 가공 되어 수출되고 있다. 진주담치는 번식력이 강하고 양식하기 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내한(內灣)이나 내해(內海)만 아니라 간석지에서도 양식할 수 있어 천해(淺海)를 개발하는 데 알맞은 양식양이로 지적되고 있다.



담치류는 현재 18종의 알과 종류가 있으나 상업적으로 중요한 것은 진주담치인데 큰 것은 길이 9.5cm, 무게 4.5g, 작은 것은 길이 3.3cm, 무게 0.3g이다. 진주담치는 유럽이 원산지라

고하며 패각(貝殼)은 얇고 후 첨색(靑色)이 있다. 지중해연안의 여러 나라에서 특히 즐겨 먹는 패류로 알려져 있다. 보편 진주담치의 육질(肉質)은 보편 단단(硬)하고 맛(味)은 달(甜)고 영양(營養)이 풍부하다. 진주담치의 육질(肉質)은 보편 단단(硬)하고 맛(味)은 달(甜)고 영양(營養)이 풍부하다. 진주담치의 육질(肉質)은 보편 단단(硬)하고 맛(味)은 달(甜)고 영양(營養)이 풍부하다.

수산피해도 지원하는 농어업재해 대책법

-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자주 발생되고 있는 서리·우박·냉해 및 동해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이상조류(異常潮流)·적조현상(赤潮現象) 등에 의한 수산양식물의 피해에 대하여는 법적지원근거가 없었음.
- 이들 법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재해가 발생될 때에는 정부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지원해 왔으나 미흡한 경우도 없지 않았음.

농어업재해에 대한 근거 마련

- 농어업 재해는 근본적으로 재해보험 제도가 바람직하나
- 현재로서는 농민의 참여도가 낮고
- 보험료 부담의 과중 등으로 도상 연승중에 있어
- 이 제도를 실시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

● 우선 농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지금까지 지원이 제외되었던 서리·우박·냉해·동해 및 이상조류·적조현상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농어업의 생계유지와 다음해 영농·영어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설치운영

- 농업 및 어업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피해조사 및 지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음.

농어업이 받는 혜택

-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작물과 수산양식물의 재해시 정부에서 농어민에게 지원되는 액수는 연간 500~1,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풍수해대책법에서 제외된 농어업재해도 지원키로

개정된「수산업법」 무엇이 달라졌나

- 대기업이나 어촌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과다한 어장을 점유함으로써 어촌계 등 다수 연안어민의 소득증대에 차질
- 대규모 매립·간척사업의 확대 등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제도가 미흡하여 분쟁민발
- 어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다수어민의 권익과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것임.



다수연안어민의 어장이용기회늘려

- 마을앞 어장은 어촌계에 우선 면허
- 어장 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특정인의 과다한 어장이용을 제한할 것임.

어민권익을 보호

- 공익사업으로 어업피해 발생시 면허 어업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것을 허가 신고 어업도 보상토록 함.

어민권익증진위한세제도 도입

- 어촌계 어장에 유료낙시터운영으로 소득원 개발
- 월동장 또는 월하장 지정제도를 신설하여 수온에 따라 양식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함.

<자료제공·농림수산부>

時 · 事 · 레 · 이 · 다